

지난해 광주·전남 주식투자자 살펴보니

# 투자자, 경제활동인구 9명중 1명

20~30대의 젊은 개인 주식투자 인구가 늘어난 가운데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주식 투자자수는 전년보다 1%가량 증가한 18만5천여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1인당 보유금액은 2천120만원으로 전국 평균의 80% 수준에 머무르는 등 소액 투자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1천694개사를 대상으로 주식투자 인구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주식투자 인구는 총 352만7천명으로 전년말보다 7만3천명(2.1%)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15.2%로 경제활동 인구 6.5명 중 1명이 주식에 투자한 셈이다. 유가증권시장의 투자자는 전년말 대비 소폭인 0.6% 감소한 반면 코스닥시장의 투자자는 10% 늘었다.

### 20~30대 개인투자자 늘어... 18만 5천명 달해 1인 평균 보유액 2,100만원... 전국 평균의 80%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주식 투자자수는 18만5천389명(광주 9만7천92명, 전남 8만7천697명)으로 전년대비 1천661명(0.9%)이 늘어 전국 주식투자자의 5.24%를 차지했다. 투자자 비중은 지역내 경제활동 인구(158만4천명)의 11.6%다.

지역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은 총 3조9천700억원이었으며, 1인당 보유금액은 평균 2천120만원(광주 2천292만원, 전남 1천708만원)으로 전국 평균(2천657만원)의 79.8%에 머물렀다.

지역 투자자들의 보유주식 시가총액은 전국 시가총액의 2.6%에 불과한 수준이어서 지역 투자자수 전국 점유비율이 5.24%인 점을 감안할때 투자금액 규모가 그만큼 소액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20~30대 젊은층의 증시 참여가 늘면서 평균 투자 연령도 2005년 46.7세에서 지난해 45.6세로 낮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40~50대층이 시가총액의 58%를 보유해 증시의 주요 수요기반을 이루는 투자층이었다. 투자 주체별로는 기관 투자자의 보유 비중이 2005년 18.6%에서 지난해 21%로 증가하며 기관화가 진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지난해 증시에서 지속적인 '팔자'에 나섰던 외

■ 개인의 지역별 주식보유 분포

구분	시가총액 (십억원)	비중 (%)	1인당 보유금액 (천원)
서울	96,778	61.7	83,415
부산	7,750	4.9	31,880
인천	2,743	1.7	20,005
대구	4,893	3.1	29,013
광주	2,471	1.6	25,293
대전	2,535	1.6	24,307
울산	3,665	2.3	33,253
경기	21,715	13.8	30,486
강원	1,032	0.7	16,720
충북	1,380	0.9	16,919
충남	1,606	1.0	17,017
전북	1,895	1.2	18,644
전남	1,499	1.0	17,089
경북	2,674	1.7	16,760
경남	3,635	2.3	20,611
제주	569	0.4	24,361
전국	156,840(합계)	100.0	26,570(평균)

※ 법인 및 주주명부상 투자지역을 확인할 수 없는 주주 제외

국인의 보유비중은 같은기간 37.2%에서 35.2%로 줄었고 개인 비중도 22.6%에서 22.0%로 줄었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40대 이상 기존 주식투자 인구가 펀드 등 간접투자로 옮겨간 반면 재테크에 관심이 높아진 청장년층들이 코스닥시장을 중심으로 신규로 직접 투자에 나서면서 주식 투자인구가 늘었다"며 "광주·전남지역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투자자수는 늘었으나 아직도 소액 개인투자자가 많은 편이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앙드레 김 자선 의상 바자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주최하고 광주일보사가 후원하는 '아프리카 어린이 돕기 앙드레 김 자선 의상 바자회'가 2일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로비에서 열렸다. 톱 디자이너 앙드레 김의 의상을 10만원~20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이번 바자회는 3일까지 계속되며 수익금 전액은 아프리카 어린이 돕기 기금으로 쓰여진다. /위경리기자 jrwi@kwangju.co.kr

## 전남도, 中企 직원들에 여권 즉시 발급

전남도는 지역 중소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여권 즉시발급제'를 운영키로 했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제한적으로 운영해 오던 '여권 즉시발급제'를 중소기업 종사자들에게 확대 적용, 도청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여권발급을 신청할 경우 즉시(4시간 이내) 발급해 줌으로써 기업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여권 즉시발급제'는 그

동안 외국에서 가족·친지의 발병, 긴급한 업무처리 등을 위한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나 비자발급에 따른 기일 촉박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적용하던 제도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여권 발급 신청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입증서류나 도내 중소기업 종사자임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 국내 도로 보급률 OECD국 최하위

### 지난해 도로 연장 10만2천61km

국내 도로 보급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도로연장은 10만2천61km로 전년에 비해 367km가 늘었지만 차량 보유 대수와 인구, 국토면적 등을 고려한 도로 보급률은 영국 등 OECD 국가 평균의 39.7%로 28위

에 그쳤다. 지난해 OECD 국가별 도로서비스 평균 지수는 3.74로 일본이 5.36, 영국이 5.16 등을 기록한 반면 한국은 1.49에 불과했다.

국내 인구 1천명당 도로연장은 2.2천61km로 전년에 비해 367km가 늘었지만 차량 보유 대수와 인구, 국토면적 등을 고려한 도로 보급률은 영국 등 OECD 국가 평균의 39.7%로 28위

전체 도로 연장의 10% 수준에 불과했으며 포장도로는 7만9천192km로 77.6%의 포장률을 기록했다.

또한 전국 도로를 잇는 교량은 2만3천805개(2천139km)며 터널은 932곳(649km)으로 전년 대비 4.1%와 14.1%가 각각 증가했다. 한편 국내에서 가장 긴 교량은 부산 남구 문현동에서 사상구 감전동을 연결하는 동서고교(1만856m)며, 해상교량은 광안대교(8천429m), 터널은 죽령터널(4천600m)이었다. /연필뉴스

## 광주·전남 건설업체 급증

### 혁신도시 건설 기대감... 1분기 87개업체 신설

국가공사의 지역 공동도급 기준급 상황에 따른 기대감 등으로 광주·전남지역 신규 건설업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중 광주·전남지역 신설법인수는 781개로, 전 분기(638개)에 비해 143개나 늘었고 전년 같은 기간(720개)에 비해서도 61개 증

가했다. 이는 2005년 2·4분기 이후 최고치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397개로 전 분기(324개)에 비해 73개, 전남은 384개로 전 분기(314개)에 비해 70개 증가했다. 자본금 규모별로는 2억5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창업이 660개로, 전체 신설 법인의 84.5%를 차지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이 87개, 서비스

## '한국아텔리움' 광주 3곳 동시 분양

### 통합주택 전시관 개관

한국건설은 3일 광주 신세계백화점 인근에 통합주택전시관을 열고 광주지역 3곳의 '한국아텔리움'아파트 동시 분양에 나섰다.

이번에 분양하는 3곳은 문흥 43·48평형, 풍암2차 44·49평형, 운림 51평형 등으로, 각각 삼각산(문흥), 금당산(풍암2차), 무등산(운림) 자락에 위치해 있다.

이들 아파트는 광주 최초로 '원금 보장제'가 도입됐으며, 중도금 무이자, 계약금 5% 등 조건도 좋



다. 문의 1577-8733.

한국건설 관계자는 "주택전시관은 건축면적 760평, 주차면적 468평 등 초대형 규모를 갖추고 있다"며 "지역 내 신개념 주택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심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배터리 원가절감의 획기적인 기회

### 품질은 100% 가격은 30%

◆ 배터리닥터,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놀라울까요? ◆ 적용범위

배터리 성능이 아직 남아있는데도, 충전 불량이나 수명감소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판에 생긴 황산염 때문입니다. 배터리 닥터는 프로벳(Probat)과 프로차지(Procharge)라는 최첨단 과학으로 황산염을 제거하고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폐배터리를 새것과 동일한 성능으로 회복시켜드립니다.

자동창고 및 물류 배송센터 ▶

◆ 기대효과

- 배터리 교체비용의 2/3 이상의 원가 절감
- 사용중인 배터리에 적용시 2배 이상의 수명연장
- 개선효과로 인한 생산성 향상
- 악성 폐기물 배출 감소 및 재활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효과

◆ 배터리 닥터, 그럼 누구에게 가장 필요할까요?

버스, 택시, 트럭, 골프카트, 지게차, 견인차, 청소차, 운반차, 공항 및 선박, 물류센터, 자동창고, 백화점등 전동장비, 운송장비를 이용하여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1년에 얼마나 많은 배터리 교체비용이 드는지 아실 것입니다. 이런불황기에 배터리 값만 아껴도 회사 살림이 확 찡니다. 지금 배터리닥터를 만나 보십시오!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여 비용을 획기적으로 아껴 드리겠습니다.

◆ 주요 실적 ◆

■ 현대자동차, 삼성전자(탕정공장), 한국 BASF, 호남석유화학 전동지게차 현장투입외 108개 업체 현장투입 가동중

bd (주)배터리닥터 BATTERY DOCTOR www.batterydoctor.com

충남·모집 전남·전북

상담전화 02)3664-1066

## (株) 행복출발은

창사이래 10년동안 오직 재혼만 전문으로 열과 성을 다한 결과 이제는 국내 최대 재혼 회원을 보유하고 최고 재혼교제율을 자랑하고 있으며 각종 언론매체에서 집중조명 되고있는 국내 대표 재혼정보회사입니다.

### 회원수 1위 한국대표 재혼정보회사

다양한 직업의 노블레스 여성회원 다수보유

초대졸 커플매니저 0명 모집

호남지역총괄 (株)행복출발 (062) 527-3388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D) 마들닷컴 >90 을 치세요